

## IV. 學術研究發表 要旨

### 원료엽 및 원료엽 배합비율에 따른 부류연중의 니코틴, 탈, 일산화탄소 함량 변화

황건중, 이문수, 나도영

한국인삼연초연구원, 분석부

본 실험은 국내외산 원료엽 및 그 원료엽의 배합비율에 따른 부류연중의 니코틴, 탈, 일산화탄소 및 흡연회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. 사용된 원료엽은 96년 국내산 황색종 및 버어리종 후,박 각 1, 3등; 미황 B3K, C4F, 미버이리 C3F, Basma, Izmir, 제지식판상엽, 주맥, 팽화각초와 토스팅처리한 버어리종 후,박 각 1, 3등 총 20구와, 이들 원료엽을 2가지에서 6가지 배합한 시료 15구를 제조하여 분석하였다. 부류연의 니코틴 함량은 원료엽 종류에 따라 9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엽이 박엽보다, 버어리엽이 황색종보다 높았으며 부 원료엽인 팽화주맥에서 함량이 가장 낮았다. 원료엽 특성에 따른 부류연의 탈 함량은 미황 C4F에서 제일 높았으며 팽화각초에서 제일 낮았고 황색종이 버어리종보다 높았으며, 제지식판상엽에서 높은 경향이였다. 일산화탄소 함량은 원료엽 종류 및 등급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. 버어리엽을 토스팅 처리하면 부류연의 니코틴 및 흡연회수는 감소하며 탈과 일산화탄소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원료엽 배합비율에 따른 부류연성분 변화를 보면, 황색종 및 버어리종 후엽을 50% 섞은 시제담배에서 부류연의 니코틴 함량이 제일 높았으며, 박엽만으로 배합시 니코틴 함량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부류연중의 탈 함량은 황색종 후엽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, 박엽 만으로 배합시 탈 함량이 제일 적었다. 엽조 배합에 따른 부류연CO 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흡연회수는 버어리엽과 팽화엽의 첨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.